

양양소식

2023. 7

Vol. 338

CONTENTS

04 기획특집 제45회 양양문화제	08 함께 가는 길 양양군 서핑협회	12 Story in 양양 양양의 청년농업인들
-----------------------	------------------------	------------------------------

장마

김현주

슬픔이 내리는 긴긴 날
하늘 속마음 어찌 알까

파란 멍 막은 하늘이라 했던 지난날
눈부심 가장한 햇살은 또 어떤 맘이었나

질금질금 눈물 흘리는 너
외면하려다 내가 울고 있다
차라리 소나기로 오지 그랬니
짹고 굶게 섬뜩, 소리치지 그랬어



김현주

프로필

- 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
한국디카시학회 회원, 양양문인협회 회원
- 농협은행 재직 (현재 휴직 중)

CONTENTS

희망양양

- 4 기획특집_제45회 양양문화제
- 8 함께 가는 길_ 양양군 서핑협회
- 12 Story in 양양_ 양양의 청년농업인들
- 15 양양, 어제 그리고 오늘_ 양양문화제

의기양양

- 16 의정소식_ 제27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 18 향토사 이야기_ 양양의용소방대 역사적 변천
- 20 YANGYANG NEWS

열린양양

- 22 문화마당_ 양양교육도서관 사서추천도서
양양작은영화관 상영 예정작
- 24 건강 알리미_ 6월부터 달라진 코로나19 방역조치
- 25 정보꾸러미_ 공공기관 행정정보 / 일자리정보
- 28 공익광고_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

COVER STORY



양양군 SNS 주소

-  블로그 : <http://blog.naver.com/likeyyang>
-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likeyyangyang>
-  유튜브 : https://www.youtube.com/c/likeyyangyang_official
-  인스타그램 : https://www.instagram.com/yangyangcity_official/

양양소식 · 338호

- | 발행일 2023년 7월 1일 | 발행인 양양군수
- | 편집인 기획감사실장
- | 발행처 양양군 Tel. 033-670-2103 Fax. 033-670-2276
- | www.yangyang.go.kr



양양군정소식지 「양양소식」은 월간 무료 구독지입니다.

구독은 tashidele90@korea.kr로 신청 바랍니다. (이름, 주소, 연락처 기재)



4년 만에 열린
양양군민 화합의 대잔치
제45회 양양문화제

양양을 대표하는 향토문화축제 양양문화제가 지난 6월 8일부터 10일까지 양양종합경기장 일원에서 성대하게 펼쳐졌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4년 만이다. 그동안 소규모 제례행사 위주로 진행돼 오다가 코로나 방역지침이 완화되면서 본래의 행사 규모로 치러졌다. 코로나 이후, 제자리로 돌아온 양양문화제는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소중하고 뜻깊은 자리였다.



양양문화제는 지난 1979년 현산문화제를 시작으로 2016년 지금의 양양문화제로 명칭을 변경했다. 올해로 45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 예향의 고장답게 조상의 얼과 전통을 이어가면서도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화합의 장이다.



4년 만에 열린 제45회 양양문화제는 지역의 번영과 주민의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고치물제와 성황제 등 제례행사를 비롯해 지역한마당잔치, 시가행진, 군민노래자랑, 민속농악공연, 민속경기, 체험, 불꽃놀이 등 총 30여 개의 다채로운 행사로 펼쳐졌다. 그야말로 양양의 진면목을 한자리에서 만끽할 수 있는 자리였다.



6월 8일 늦은 오후 양양읍내가 양양문화제의 시작을 알리는 시가행진으로 들쭉였다. 전통 악대인 취타대를 선두로 태극기, 대회기 행렬과 양양고 학생들의 제등행렬, 육군과 해군의 양주방어사, 대포수군만호행차가 뒤를 이었다. 그리고 양양중학교 학생들의 신석기인 가장행렬, 6개 읍면 양양농악대의 신명 나는 행렬이 흥을 돋우고, 대형캐릭터와 피에로의 깜짝 퍼레이드가 눈길을 끌었다. 특히나 취타대는 양양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학교 수강생으로 이뤄진 전통악대이다.



개막식이 시작되기 전 양양종합운동장 특설무대에서는 식전 행사로 양양독립 만세운동 재현행사가 열렸다. 3·1독립만세운동이 치열했던 고장답게 함께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분위기를 한껏 고조됐다.

자랑스러운 군민문화상 수상자 시상식에 이어 김진태 강원도 지사를 비롯해 김진하 군수, 박상민 양양문화제위원장 등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본격적인 개막식이 진행됐다.





개막식이 끝나고 군민 노래자랑과 초청가수 공연으로 무대 열기는 더욱 뜨거워졌다. 양양군민 총 12팀이 참여해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노래 실력들을 뽐냈다. 수준급의 양양 가수들이 총출동한 듯했다. 압도적인 고음으로 '황홀한 고백'을 부른 진용석씨가 대상을 차지했다. 군민 노래자랑이 아닌 전국노래자랑대회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다들 실력이 쟁쟁했다.

밤하늘을 수놓은 대망의 불꽃놀이로 4년 만에 다시 찾아온 양양문화제 첫날 화려한 복귀식을 마쳤다.





양양문화제 이튿날인 6월 9일에 본격적인 군민화합의 경연장이 펼쳐졌다. 민속놀이체험장에서는 제기차기, 목침 뺏기, 탁장사, 농악경연대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렸다. 6개 읍면 농악대별로 15분간 기량을 뽐내는 시간, 마을 주민도 주위를 둘러싸고 열띤 응원을 펼쳤다. 흥겨운 농악과 함께 마을마다 특색있는 퍼포먼스가 이어졌다. 특히 최연소 참가자인 5살 여자가 아이가 무동 복장을 하고 농악대 뒤를 따르는 모습이 깜찍했다. 세대를 초월한 전통문화 계승의 현상이 또 다른 감동이 었다. 한편에선 양양의 전통을 현대판으로 변형한 탁장사 대회가 읍면별 경연대회로 열렸다. 남녀가 짝을 이뤄 통나무 자르기로 힘겨루기하는데, 이기고 지는 승부를 떠나 모두 함께 즐기는 자리였다.

양양문화제의 꽃은 강원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수동골상여소리와 상복골 농요소리 민속시연이 아닐까 싶다. 양양종합운동장을 찰랑찰랑 울리는 어르신들의 상여소리와 농요소리가 시간여행을 떠난 듯했다. 양양의 전통문화가 그대로 전해지고 있다는 자부심이 느껴졌다.

그 밖에도 양양문화제가 열리는 사흘간 전통민속체험, 현산백일장 등 30여 가지의 부대행사가 펼쳐졌다. 민속놀이, 문화재, 체육, 공연, 지역동아리 댄스, 아나바다 장터, 향토음식, 공예품 전시에 이르기까지 전통과 현대, 남녀노소가 한데 어우러지는 소통과 축제의 장이었다.

매년 느끼는 거지만 양양문화제를 더욱 빛나게 하는 건 뒤에서 묵묵히 질서관리를 한 친절 자원봉사자들이 아닐까 싶다. 이런 숨은 노력들이 양양문화제를 45년 전통의 축제로 이어가는 원동력이다.

코로나라는 긴 터널을 지나 4년 만에 열린 제45회 양양문화제는 여전히 양양군민을 한데 어우러지게 하는 향토문화축제의 장이었다. 각종 전통문화행사와 체육경기, 군민노래자랑에 이르기까지 양양군민의 안녕과 평화, 화합을 다지기 위한 양양문화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지역을 넘어서 많은 국민이 함께하는 문화축제로 발전하고 있다.

양양군 서핑협회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양양군을 찾은 관광객은 약 1,681만 명으로 전년 대비 17% 증가율을 기록했다. 서울-양양 고속도로를 통해 접근성이 가까워진 것은 물론, 풍부한 관광 인프라 중에서도 서핑 문화와 함께 변하고 있는 도시 이미지가 커다란 영향을 준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해변을 따라 늘어선 서핑샵과 카페, 식당 등에 사람들이 열광하고, 한적하던 바다는 서핑스팟으로 유명해지면서 사람들로 북적인다. 푸른 바다 위에서 바람을 가르며 시원하게 파도를 타는 풍경은 가장 핫하고 힙한 풍경이 되어 양양을 대표하는 브랜드가 되었다. 낯설기만 하던 서핑의 매력을 일찌감치 알아본 이들이 양양군 서핑협회를 만든 지 올해로 11년째다. 서핑이 좋아 양양을 찾았다가 정착한 이들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꿈꾸며 지난해에 이어 서핑강사 인증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서핑’하면 ‘양양’, ‘양양’하면 ‘서핑’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해변마다 손님 맛을 준비가 한창이다. 최근 몇 년 동안 가장 주목받는 해양 스포츠로 떠오른 서핑은 양양군 대부분의 해변에서 가능하다. 기사문과 죽도로 시작한 서핑 포인트는 남해, 동산, 물치, 인구, 중광정, 낙산 등이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서핑 포인트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 서핑샵의 절반 가량이 양양군에 포진되어 있다. 양양군이 지금의 서프시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서핑을 사랑하고 서핑 문화를 만들어온 이들은 10년 전 이곳에 자리 잡고 양양군 서핑협회를 만들었다.

“지금 양양군에 있는 서핑샵이 80여 곳 쯤 되는데, 꾸준히 새로 생기고 사라지고 하고 있어요. 여름 시즌을 앞두고 있으니까 개수는 또 늘어날 거예요. 그중 60여 곳이 현재 서핑협회에 등록돼 있습니다. 대부분이 서핑이 좋아서 왔다가 자리 잡은 사람들이고, 원주민이었던 분들도 계세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서핑 이야기도 하고, 양양에 사는 이야기도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장래홍 회장

2014년 양양군생활체육회에 회원 단체로 승인을 받았고, 같은 해 양양군수배 국제서핑 페스티벌을 시작해 코로나19 장기화로 2년을 중단했지만, 해마다 꾸준히 서핑 페스티벌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해양수산부장관배로 서핑대회를 치르고 있으며, 올해 또한 국내 최대의 서핑대회 개최를 준비 중이다.

대회 참가 인원이 주요 해변에만 몰리지 않도록 올해에는 대회마다 다른 해변에서 치르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해변마다 파도의 특징이 다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골고루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는 이유에서다. 2014년 기준 약 4만 명이던 서핑 인구는 최근 100만 명까지 늘어난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가운데, 양양이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서핑성지로 자리매김한 데에는 양양군 서핑협회의 이런 고민들이 뒷받침되었다.



〈2023년 해양수산부장관배 서핑대회 예선전 포스터〉

국내 최초의 서핑강사 인증 교육

양양군 서핑협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2년째 서핑강사 인증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체계적인 서핑강사 소양 교육을 통해 우수한 서핑강사를 양성하는 국내 최초의 서핑강사 인증 교육으로 알려지면서 전국에서 문의가 오고 있다. 더욱이 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해양 레포츠에 대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서핑강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차수당 주5일 30시간씩 운영하여 지난해에는 118명이 서핑강사 인증을 받았으며, 올해는 11월까지 10회차 일정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내용으로는 서핑 강사가 바다에서 안전한 강습을 진행할 수 있는 소양을 갖추기 위한 서프 레스큐 교육과 서핑 규칙, 서핑 기술 습득, 심판 교육을 받아 서핑 코치로서 자질을 갖추고, 지상에서 서핑 이미지 트레이닝 훈련을 위한 랜드 서핑 교육과 기본 강습 과정을 체계화할 수 있는 교육을 한다. 누구나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교육을 마친 수강생들은 양양군 서핑협회에서 발급하는 '서핑강사 인증서'를 받을 수 있다.

"사람들은 흔히 양양 서핑에 대한 대표 이미지라 하면 제일 먼저 서피비치나 죽도, 인구 해변 같은 서핑 전용해변을 먼저 떠올리면서 근사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처음엔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막상 양양에 와서 서핑을 체험하다 보면 실제 이미지를 결정하는 건, 바로 내 앞에 있는 강사라고 생각합니다."

서핑 인구 중에 상당수는 서핑을 처음 경험하러 오는 체험객이다. 양양을 찾는 여행자들에게는 서핑강사들이 실질적인 지역의 이미지를 좌우할 수 있다는 게 장래홍 회장의 생각이다. 서핑강사들의 기본 소양, 강습 방식, 고객 서비스 등이 우리 지역에 대한 결정적인 이미지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서핑강사는 서핑샵마다 차이만 있을 뿐 시간제 일자리 형태로 기본적인 교육만 제공하다 보니 강습의 품질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반면 '서핑강사 인증서'를 받은 우수 강사들을 채용한 서핑스쿨에서는 이런 전문성을 최대한 강조해 고객의 신뢰를 받고 강습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양양의 청년농업인들

현실판 ‘리틀 포레스트’를 응원합니다.

농사를 지으며 자급자족으로 살아가는 젊은이의 이야기가 담긴 영화 ‘리틀 포레스트’는 귀촌에 대한 로망을 제대로 자극한다. 물론 현실은 그리 아름답지만은 않겠지만, 그것마저도 청춘의 힘으로 끌어안아 내는 청년농업인들이 있다.

현재 양양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청년 농부의 수요는 전체 농가의 0.8% 정도를 차지한다. 양양군 농업기술센터는 2018년부터 청년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지원사업,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청년농업인 창업기반 구축사업, 청년농업인 정책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등 청년 관련 지원사업을 활발히 추진하면서 청년농업인들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영농 정착을 돕고 있다.

최근 농업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추진된 2023년 청년농업인 창업기반구축 지원사업에 양양의 청년농업인 4명이 최종 선정되었다고 한다. 혁신적인 지식과 남다른 경력으로 농업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어 줄 양양 청년농업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찐 도시인들의 좌충우돌 농촌 정착기

Story in 양양 13

여기, 서울에서 아무 연고도 없는 양양으로 이주해 청년 농업인이 된 '찐' 도시인들이 있다. 농사와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하던 그들이 귀촌을 선택한 이유는 각자 뜻하는 바가 명확했기 때문이다.

김지현·이창근 씨 부부는 가족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시골로 내려왔다. 서울에서 인테리어업에 종사하던 이창근 씨는 아이들에게 '가족보다 일이 더 중요한 아빠'로 남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도시 생활을 접고, 시간을 자유롭게 할애할 수 있는 농촌살이를 선택했다. 평소 양양과 강릉, 속초 등에서 캠핑을 즐기며 바닷가 마을에서의 노후 생활을 꿈꾸곤 했는데, 그 꿈을 조금 일찍 이루어낸 것이다.



처음에는 버섯의 종류도 구분을 못했던 농사 문외한이었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좋은 품질의 표고버섯을 재배하겠다는 의지로 가득한 열혈 농부가 되었다. 버섯 재배의 핵심이 되는 배지를 직접 만들고, 양양만의 종균을 개발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이창근 씨는 아내 김지현 씨와 함께 버섯종균기능사, 버섯산업기사 등 버섯 관련 전문 자격을 하나씩 갖춰나가는 중이다. 가족에게 집중하고 싶어서 귀촌을 선택했는데 다시 일을 바라보게 된 셈. 하지만, 이 또한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 건실한 부부 농사꾼이 일과 가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잘 길러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전직 플로리스트인 이희연 씨는 코로나19로 일감이 줄어들자 자신의 전공을 살린 다른 작업을 모색하다가 청년 농부의 길로 들어서게 됐다. 서핑을 즐기러 자주 찾아오던 양양에서 그녀는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다.

이희연 씨는 시장 분석을 통해 양양에 특색 있는 즐길 거리가 부족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허브'라는 희소 아이템을 기반으로 한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다. 허브에 '치유'라는 요소를 접목한 맞춤형 테라피, 농장에서 직접 채취한 허브로 먹거리를 만들어 즐기는 '팜 투 테이블(Farm to Table)' 등 차별화된 체험프로그램을 선보일 생각이다.

가족과 떨어져 온전히 혼자서 힘으로 허브 농사를 짓고 있지만, 자신의 선택을 후회한 적은 없다고 한다. 언젠가는 자신이 운영하는 허브 농장을 지역의 명소로 키워서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고 싶다는 이희연 씨. 자신의 경험과 전문성을 밑거름 삼아 자신의 목표를 향해 한 걸음씩 차근차근 나아가고 있다.



떡잎부터 남다른 차세대 농부들

태어나기를 농부의 세포를 가진 사람들도 있다.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그들은 이미 계획이 다 있었다.

경기도 여주에서 자라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농촌문화를 접한 김수행 씨는 연암대에서 스마트팜을 전공하고, 충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토마토, 파프리카, 딸기 등 작물의 생육 관리를 하던 중 창업을 결심했다. 그는 양양으로 이주해 1년 전 영농활동을 시작해 현재 고설베드로 설향 딸기를 재배하고 있으며, 수확 체험프로그램도 함께 운영 중이다.

김수행 씨가 양양살이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기후'였다. 겨울엔 온난하고 여름엔 시원한 해양성 기후는 온·습도가 관건인 딸기 재배에 적합했기 때문이다. 고품질 딸기를 생산하기 위해 생활 터전도 옮기고, 농산물을 취급하는 공판장이 없어 직접 발로 뛰면서 판로를 개척해낸 그의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딸기에 진심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언젠가 양양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바닷가 마을에 딸기 카페를 차리겠다는 꿈도 끈기와 성실, 전문성까지 갖춘 김수행 씨라면 웬지 가까운 미래에 이루어낼 것만 같다.

윤희원 씨 역시 일찌감치 진로를 결정한 청년 농업인이다. 한국경마축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농수산대학교에서 말산업을 전공한 그는 고급스포츠로 불리던 '승마'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많은 이들이 말과 친해질 기회를 제공하고자 승마 체험 사업을 시작했다. 윤희원 씨에게 양양은 10년 전에 아버지가 귀농한 지역이기도 했지만, 사업의 기반을 닦을 기회이기도 했다. 사업 초기 단계인 지금은 말과 토끼, 기니피그, 라쿤 등을 키우며 동물 먹이주기 체험과 화덕피자 만들기 체험을 진행 중인데, 양양에 즐길만한 체험프로그램이 부족하다 보니 따로 홍보하지 않아도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편이라고 한다.

윤희원 씨의 최종목표는 양양의 아름다운 자연을 누비며 외승(산악승마)을 대중적으로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이른 나이에 농업인으로 진로를 결정하고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에 걱정하는 시선도 있지만, 그는 도전을 통해 배워나가는 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무슨 일이든 첫걸음이 중요하다. 우리가 만난 4인의 청년 농업인들도 초기 영농의 어려움과 시행착오를 겪었다. 그들에게 양양군 농업기술센터의 지원사업들은 버팀목이 되어주었을 것이다. 그건 비단 그들만의 고민은 아닐 터. 이 시대 청년 농업인들을 살뜰히 챙기는 정책들이 쏟아지길 기대하는 건 너무 낭만적인 생각일까? 농작물은 농부의 발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말이 있다. 오래오래 농부들의 발소리를 들으며 자라는 논과 밭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글·사진 : 편집부〉



양양, 어제 그리고 오늘



1981년 제3회 현산문화제



2023년 제45회 양양문화제





의

정

소

식



「제27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6월 15일부터 6월 26일까지, 12일간 운영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군정질문, 일반안건 외 조례안 17건 등 총 31건 부의안건 심의·의결

양양군의회(의장 오세만)는 6월 15일부터 26일까지 12일간 일정으로 「제27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를 운영하여 17건의 제·개정 조례안과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양양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양양군 위케이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군정질문 및 답변 등 총 31건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명숙 의원의 '양양군립 도서관 건립 관련 공간활용 최적화를 위한' 5분 발언을 시작으로 박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릉시 주문진 지정폐기물 매립장 설치 반대 결의안', 이종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양교육지원청 신설 촉구 건의안' 발표가 이어졌다.

박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릉시 주문진 지정폐기물 매립장 설치 반대 결의안'은 주문진 향호리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장 지정폐기물 매립시설의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해당 시설물 5기로 반경 영향권에 양양군 현남면 9개 마을이 포함되어 있어 군

민들의 건강권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립장 설치사업을 즉각 철회할 것을 결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종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양교육지원청 신설 촉구 건의안'은 강원도 18개 지자체 중 유일하게 양양군만 독립된 교육지원청이 존재하지 않아 양양군 학생과 학부모들이 누려야 할 보편적 교육복지와 서비스 등의 교육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는 불합리한 교육 현실을 지적하며, 교육정책의 불균형 해소는 물론 진정한 의미의 교육자치를 실현하고자 양양교육지원청 신설 촉구를 건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선남, 간사 이명숙)는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를 통해 과다한 불용, 반복적인 이월 등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봉균, 간사 이종석)는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8건과 의원발의 조례안 9건 등의 안건을 심의하고, 6월 26일 제4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였다.



한남초등학교 5, 6학년 양양군의회 본회의 방청 및 견학

한남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이 세계시민교육 관련 체험학습으로 6월 15일 양양군의회를 방문하여 본회의장, 소회의실, 의장실 등 주요 시설물을 견학하고, 제27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방청하였다.

본회의 산회 후 실시한 면담에서는 “양양군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군민을 대표하여 일하면서 보람되고 기쁜 순간은 언제였는지” 등의 학생들의 다양한 질문과 군의회의 역할과 기능, 회의 운영 방식 등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오세만 의장의 답변으로 활발하고 유익한 교육현장의 시간을 가졌다.

5학년 김민중 학생은 “티비에서만 보던 국회의 축소판인 느낌이어서 떨렸다”라며 덧붙여 “책에서만 배우던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에 대한 내용을 직접 경험하고 설명 들으니 더 이해가 잘 되었고, 새롭고 신기한 경험이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오세만 의장은 “학생들이 이번 견학을 통하여 풀뿌리 민주주의 현장으로 오래 기억되길 바라며, 반짝이는 꿈을 꾸는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양양군을 만들기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더욱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약속하겠다”라고 말했다.

양양의용소방대 역사적 변천

양양의용소방대가 금년으로 설립 71주년을 맞는다. 양양의용소방대는 한국전쟁 중에 창설되어 상당기간 민간주도로 지역의 소방방재 임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하겠다.



오늘날 의용소방대(義勇消防隊)의 효시(嚆矢)는 세종19년(1437)에 세워진 '지방의용금화조직(地方義勇禁火組織)'이다. 충청·경상감사의 주청으로 각 고을의 도적 방지와 화재 예방 등 마을의 방재(防災)를 위해 자율적으로 활동을 하던 조직인데 무기 소지와 사용이 허락되었다 한다.



〈완용펌프 위력시범 (양양시장부근, 1935년 9월 16일 조선신문기사)〉

일제강점기인 1915년 8월 조선총독부는 도지사가 소방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조(消防組)를 구성할 수 있게 하였다.

일제가 1937년 「방공법조선시행령」을 제정하고 1939년 「경방단규칙」을 공포하면서 소방조를 해체하여 경방단(警防團)으로 통합하였다가 일제가 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하자 경방단이 자동으로 해체되었다.

양양소방조가 1928년 1월 15일 50여명으로 출초식(出初式)을 가진데 이어 리희조의 4명의 조원에게 공로표창을 수여했다는 부산일보 기사로 미루어 보아 양양군의 소방역사는 이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광복 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소방대는 소방업무와 전후 복구사업 등 정부 정책에 협조하였으나, 1953년 민병대(民兵隊)를 조직하게 됨으로써 해산되어 일시적으로 민간 자체 소방조직이 없어졌다.



〈양양시장 화재감시탑(의용소방대 첫 번째 청사, 현 남문 5길-15, 제일육교점)〉

6·25 이후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의용소방대의 필요성이 재인식되어 1954년 1월 전국적으로 의용소방대를 재조직하기에 이르렀으며, 1958년 소방법 제정 시 의용소방대 설치근거를 마련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해(무술)에 동원된 학생들이 완용펌프 사용을 체험하며 눈에 물을 대고 있다.〉

우리 군은 수복지역 자치행정의 일환으로 타 지역에 앞서 1952년 1월 30일 의용소방대를 결성하고 제1대 박태송 대장을 위시한 50여명의 대원으로 창설하여 재난현장에서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화재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 시 화재진압과 구조, 구급, 화재예방 홍보활동을 실행하였다.

양양군의용소방대연합회 여대(女隊)는 1989년 5월 11일 발족하여 34년 간 화재진압은 물론 구조와 구급, 식량과 급수 등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양양의용소방대 2번째 청사 (현 남문6길-5 / 100-10번지)〉

1990년대 중반까지 양양은 소방관서가 없었기에 의용소방대의 역할이 매우 크고 중요하였는데 산불 등 재난현장에는 언제나 이들이 제일 먼저 출동하였다.

1980년 5월 9일 설악산 관모봉 일대에서 산불이 났을 때 의용소방대원들이 10여 일 동안 지속적으로 현장에 투입되었고 2일간 밤샘근무를 하였다.

2005년 4월 4일 발생한 대형화재로 천년고찰인 낙산사에 위기가 닥칠 때에도 이들이 사투를 벌인 바 있다.



〈양양의용소방대 3번째 청사 (구 등기소 옆 주차장 현 성내리 7-4번지)〉

1994년 5월 10일 속초소방서 양양소방파출소가 신설된 바 있고 2016년 5월 10일 양양소방서가 생기면서 우리의 소방조직은 더욱 완벽한 민관지휘협조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현 양양의용소방대 대원은 2022년 기준, 6개 지대에 379명(남 239, 여 140)이다. 이들은 법에서 정한 소방업무는 물론 각종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

〈글·사진 : 양양문화원〉



녹색생태공원 조성사업 추진

양양군, 녹색생태공원 조성 사업 추진

기후변화에 따른 북부 동해안의 자생식물을 보존하고, 아열대 기후에 대비한 다양한 식물 생태공간 조성, 주민 휴식처 제공을 위해 녹색생태공원을 조성하고 있다. 위치는 군 농업기술센터 내에 7,558m² 규모로 총 사업비는 33억 3천만 원이고 지난해 10월에 착수하여 오는 8월 말에 완료할 예정이다. △식물을 중심으로 자연물과 인공물로 가꾸어진 '정원' △식물 유전자원을 수집·증식·보존하고 연구하는 '식물원' △주민들에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한 '공원'의 기능을 통합하여, 남대천 주변 생태환경과 조화된 사계절 아름다운 자연 녹색공간이다.



양양 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 실감 콘텐츠 및 체험존으로 '재단장'

양양 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 실감 콘텐츠 및 체험존으로 '재단장'

군은 기존 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의 정적인 콘텐츠를 개선하고 전시 연출에 디지털 실감콘텐츠를 가미하여 이용객들에게 실감나고 흥미로운 선사유적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오는 8월말 까지(전시시설 공사는 7월 26일까지) 실감콘텐츠 제작 및 체험존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오산리 선사유적박물관 내부 제1전시실에 하천·바다·계곡 영역별로 실감나는 프로젝터 영상을 표출하고, 숲속영역에는 VR을 통해 다양한 숲속 동물과 자연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지역 역사·문화 담은 '마을교과서' 제작추진

지역 역사·문화 담은 '마을교과서' 제작 추진

양양군이 양양교육지원센터와 지역 학교와 협업해 관내 초등학교 수업에 활용될 지역화 교재 콘텐츠(이하 마을교과서)를 제작한다.

군은 양양의 역사와 문화 등을 반영한 보조교재 콘텐츠를 제작하여 관내 초등학교 3학년 사회 교과 수업에 연계하여 활용하고자, 올해 12월까지 마을교과서를 제작한다. 마을교과서에는 초등학교 3학년 사회 교과 학습 내용과 연계하여, 아이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 알아야 할 역사와 문화가 담길 예정이다.



2023년 해양레저스포츠 교육 프로그램 추진

양양군이 지역 해양레저관광 저변확대를 위하여 '2023년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해양레저스포츠 프로그램은 크루저요트 · 당기요트 · 패들보드 체험, 랜더서핑 교육, 서핑강사 인증 교육 등 다양한 해양레저스포츠의 체험 · 이론 · 실습으로 이루어졌다. 체험은 관내 청소년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지난 6월 1일을 시작으로 11월까지 수산항 요트마리나에서 진행된다.



관내 21개 해수욕장 수질 · 토양검사 실시

여름철 개장을 앞두고 관내 해수욕장 21곳에 대해 수질검사를 실시한다.

이에 군은 환경기준 충족 여부를 검사하고 해수욕장 이용객에게 정확한 환경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관내 21개 해수욕장에 대해 6월 12일부터 9월 20일까지 해수욕장 개장 전 · 중 · 후 세 차례에 걸쳐 수질검사를 실시하며, 지난 5월 23일부터 개장 전인 7월 1일까지 토양검사를 실시한다. 군은 검사를 충실히 진행하며 관광객들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하게 피서를 즐길 수 있도록 올해 해수욕장 운영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상수도 계량기 무선원격검침 시스템 구축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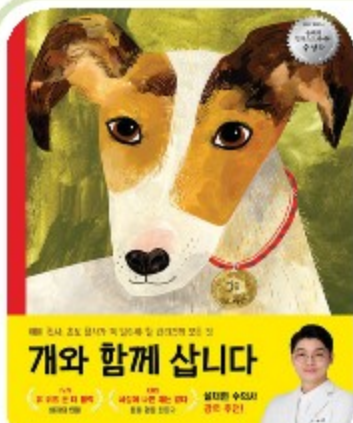
스마트 관망정비 인프라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양양군 전세대에 무선 원격검침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군은 원격검침 체제를 구축하여 실시간으로 누수 및 과다 사용 여부 확인을 통해 물 낭비를 방지하고 정확한 검침 데이터를 반영한 요금 부과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실시간 수도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계량기인 일체형 무선 원격검침 단말기를 설치한다.

양양교육도서관 사서추천도서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로 50 양양교육도서관
Tel : 033-672-2679 FAX : 033-672-2689
<https://lib.gwe.go.kr/yylib>



개와 함께 삽니다 : 반려견에 대한 모든 것

저자 : 엘레나 블라이

옮긴이 : 이윤정 / 발행처 : 주니어RHK / 발행년 : 2023 / 청구기호 : 아 527.4186-불292 7 / 자료위치 : [양양]아동열람실

『개와 함께 삽니다』는 2023 볼로냐 아동도서전 '라카치상 어메이징 북셀프' 선정작이자 2022 '올해의 일러스트레이터' 수상작으로, 반려견을 키우는 데 필요한 기본·필수 정보와 유기견을 입양한 작가의 실제 경험을 함께 담은 지식그림책이다. 우리 가족과 잘 맞는 반려견 성향 찾기, 반려견 입양하는 법, 반려견 행동의 의미와 문제 행동, 반려견의 노화 과정에 이르기까지 반려견에 대한 정보를 19개 주제로 나누어 세세하고 친절하게 소개한다. 각 주제 뒤에는 작가가 유기견을 입양하고 기르면서 겪었던 일들을 담았다. 반려견을 입양했거나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이 반려견을 키우며 겪을 수 있는 상황을 미리 간접적으로 경험해 보도록 했다.

어린이

우리 반 애들 모두가 망했으면 좋겠어



우리 반 애들 모두가 망했으면 좋겠어

저자 : 이도해

발행처 : 자음과모음 / 발행년 : 2022 / 청구기호 : 813.6-이25 0 / 자료위치 : [양양]종합자료실

제12회 자음과모음 청소년문학상 수상작품. 우등생이 되어 엄마와 오빠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꿈꾸는 주인공은 어느 날 문제집에 잘못된 기재된 정답으로 인해 성적이 떨어지게 된다. 분노를 풀기 위해 학교 앞 서점에서 문제집 속 해당 문제에 출을 그어 대던 주인공을 발견한 서점 주인 '미미'는 주인공에게 서점 2층에서 열리는 독서 모임에 참여하라며 제안을 가장한 '협박'을 한다. 그곳에서 주인공은 익명의 세계에서 자신을 괴롭게 하는 이들에게 복수를 꿈꾸는 사람들을 만난다. 주인공이 스스로를 극복하고 다음 발걸음을 내디뎠듯이 소설을 읽는 독자들도 가장 사소한 발걸음을 통해 오늘의 내가 건재함을 느끼고, 내일로 가기 위한 힘을 얻기를 응원해주는 작품이다.

청소년



여기는 '공덕동 식물유치원'입니다

저자 : 백수혜

발행처 : 세마물론 / 발행년 : 2023 / 청구기호 : 818-백56 0 / 자료위치 : [양양]종합자료실

저자는 공덕동의 조그마한 마당이 있는 집으로 이사 온 후 어느 날 우연찮게 재개발 단지를 마주친다. 놀랍게도 이주민이 버리고 간 수많은 물건들의 대다수는 식물이었다. 화분만 챙겨 갔는지 화분 모양대로 흙과 함께 굳어진 식물이 있는가 하면, 잠동사니가 가득 담긴 상자에 끼여 있는 식물, 음식물 쓰레기 틈에 방치된 식물, 심지어 멸종한 식물이 화분 통째로 우두커니 폐허를 지키고 있었다. 공사가 시작되면 식물들이 한순간에 사라질 것이 안쓰러워 하나씩 구조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유기식물 구조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저자가 식물들을 구조하고 돌보는 과정을 들여다보며 독자들은 식물과 어떤 방식으로 공존할 것인지 스스로 질문하게 될 것이다.

일반

양양
작은영화관
상영예정작



도라에몽 :
친구와 하늘의 유토피아



1986 그여름,
그리고 고등어통조림



미션임파서블 :
데드 레코딩



밀수



슈퍼윙스 : 맥시멈 스피드



작은영화관 기획전

※영화와 개봉날짜는 배급사와 영화관의 사정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양양작은영화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https://yangyang.scinema.org> ☎033-673-7050

6월부터 달라진 방역조치

2023년 6월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으로

6월부터 달라지는 코로나19 방역조치 한눈에 알아보기

주요 변경분야	변경(변경 일자: 23.5.31)	변경(변경 일자: 23.5.31)	
방역 조치	격리	확진자 7일 격리	✓ 5일 격고 전환
	마스크	· 의료 1일 격고 · 의료 외 2일 격고 (의료기관, 의료기관 외)	✓ 격고 전환(의료 1일 외 기타) ✓ 일부 일부 양자 (의료 기관 외 의료 기관 외)
	감염 추방 시설 보호	감염 추방 시설 감염 추방 시설(감염 추방 시설) 감염 추방 시설(감염 추방 시설)	✓ 감염 추방 시설 격고 전환 (감염 추방 시설 외 기타) ✓ 감염 추방 시설 격고 전환 (감염 추방 시설 외 기타)
	검역	입국 후 3일 PCR 격고	✓ 입국 후 3일 PCR 격고 완화

격리

Q1 확진자 격리 의무,
어떻게 달라지나요?

- A** 기존 격리통지 문자는 양성확인 통지 문자로 대체되며, 확진자 7일 격리 의무가 5일 권고로 전환됩니다.

* 방역을 가장 위한 기간, 입국 후 감염확률에 따른 7일 격리 권고

방역 전환 조치는 6월 1일 0시부터 시행되며, 기존 격리 중인 확진자도 소급 적용되어 6월 1일 이후 남은 격리기간은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됩니다.

대상: 5월 29일 확진일 당초 3일 및 2일 격리 의무

격리

Q2 권고에 따른
격리참여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 A** 코로나19 확진에 따라 격리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보건소의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다음날까지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을 하면 됩니다.

※ 등록이 완료된 확진자의 등록금(자세한 내용은 등록신청서 참조)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은

- ① 온라인(확진자 자기가입식 조서서 URL) 신청,
- ② 관할 보건소로 전화(양성확인 통지 문자 내 담당번호) 또는 방문(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활지원 제도

Q3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등
입원자·격리자 생활지원은
유지되나요?

- A** 권고에 따른 격리참여 대상자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 입원·격리자 생활지원이 한시적 유지됩니다.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대상자	코로나19 확진자(의료 격고 대상 제외)	코로나19 확진자(의료 격고 대상 제외)
대상자	1. 의료 격고 대상 2. 의료 격고 대상(의료 격고 대상 제외) 3. 의료 격고 대상(의료 격고 대상 제외)	1. 의료 격고 대상(의료 격고 대상 제외) 2. 의료 격고 대상(의료 격고 대상 제외) 3. 의료 격고 대상(의료 격고 대상 제외)
대상자	1. 의료 격고 대상(의료 격고 대상 제외) 2. 의료 격고 대상(의료 격고 대상 제외) 3. 의료 격고 대상(의료 격고 대상 제외)	1. 의료 격고 대상(의료 격고 대상 제외) 2. 의료 격고 대상(의료 격고 대상 제외) 3. 의료 격고 대상(의료 격고 대상 제외)
대상자	1. 의료 격고 대상(의료 격고 대상 제외) 2. 의료 격고 대상(의료 격고 대상 제외) 3. 의료 격고 대상(의료 격고 대상 제외)	1. 의료 격고 대상(의료 격고 대상 제외) 2. 의료 격고 대상(의료 격고 대상 제외) 3. 의료 격고 대상(의료 격고 대상 제외)

마스크

Q4 마스크 착용 의무, 어떻게 달라지나요?

- A** 기존 착용 의무가 있던 입소·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약국 중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에서의 의무는 권고로 전환됩니다.

Q5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의원과
계속 착용해야 하는 병원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 A** 의료법 제3조 제2항 구분 기준에 따라,
의원: 주로 외래 중심의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
병원: 주로 입원환자 대상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

* 의료법 제3조 제2항 구분 기준에 따라,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입소·감염취약시설은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입소·감염취약시설에 해당한다.

감염취약시설

Q6 감염취약시설에서
달라지는 점은?

- A**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주 1회 선제 검사 의무가 필요할 경우로 완화되며,

감염취약시설에서 접촉대면 면회 시 금지됐던 입소자 취식도 6월부터 허용됩니다.

다만,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됩니다.

검역, 예방접종

Q7 입국자 검역, 어떻게 달라지나요?

- A** 현재는 입국 후 3일 이내 PCR검사를 권고하지만, 6월 1일부터는 권고가 해제됩니다.

Q8 코로나19 예방접종, 어떻게 달라지나요?

- A** '2023년 코로나19 백신접종 기본방향'에 따라, 연 1회(10~11월) 접종 시행 예정이며, 면역 형성이 어렵고 지속기간이 짧은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연 2회 접종을 실시합니다.

대응체계와 통계 발표

Q9 코로나19 대응체계와
통계 발표, 변경사항은?

- A**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심의 병행부 대응이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심의 재난위기 상황 체계로 변경되며,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집계·발표했던
코로나19 통계는 주 단위 발표로 전환됩니다.

* 소문자 제외(제1회) 이후 통계를 5시 30분 발표 예정

양양소식지 일자리정보

양양군청 본관3층 경제에너지과 TEL. 033-670-2289 / FAX. 033-670-2303

사업장명	모집인원	모집직종	근무시간	급여
온누리재가노인복지센터	1명	재가요양보호사	08:00~12:00(주6일)	시급12,100원
양양군 가족센터	2명	아이돌보미 (차량소지자 우대)	시간협의	시급 9,630원 이상
주식회사 삼일팩	1명	배송납품운전원	08:00~17:00(주5일)	월250만원
양양수산	1명	식품가공 품질관리원	08:00~17:00(주5일)	월230만원~월250만원
주식회사 윤진유통	1명	마트 상품진열원	09:00~18:00(주5일)	월220만원
(주)재성정보통신	2명	통신장비설치, 수리원	08:30~18:00(주5일)	월220만원 이상(협의)
에스지건설주식회사	1명	건설업 품질관리자 (토목기사 우대)	근무시간 협의(주6일)	연5,000만원 이상(협의)
(주)한화 (양양수리공력)	1명	안전관리자	07:00~17:30(주5일)	월220만원 이상
기아오토큐	2명	자동차정비(엔진부)	09:00~18:00(주5일)	협의
	1명	고객상담원	09:00~18:00(주5일)	협의
(주)골든에스앤씨 (설해원)	8명	홀서빙원	1일 8시간 순환근무	월245만원
	3명	현관/락카사원	1일 8시간 순환근무	월245만원
	3명	프론트사무원	1일 8시간 순환근무	월247만원
	5명	객실청소원	08:30~17:30(주5일)	월237만원
(주)휘찬산업 (낙산비치호텔)	1명	하우스키퍼	순환근무	월220만원 이상
	1명	프론트사무원	순환근무	월220만원 이상
	2명	홀서빙원	순환근무	월220만원 이상
(주)소노인터내셔널 양양지점 (폴비치)	1명	숙박시설 서비스원 (컨시어지)	08:30~17:30(주5일)	연2,840만원~3,320만원
	5명	홀서빙원	08:30~17:30(주5일)	연2,840만원~3,320만원
	3명	기계시설 유지보수원 (자격증소지자 우대)	2교대근무	연3,100만원~3,700만원
(주)소노에스테이트 서비스	5명	숙박시설 서비스원 (정비상황, 하우스맨)	09:00~18:00(주5일)	월201만원 이상(협의)

양양군보건소 안과 및 산부인과 진료안내



양양군보건소

안과 및 산부인과 진료 안내

안과 진료시간 평일 09:00~17:00 ※토, 일, 공휴일 휴무 / 담당의사 부재시 휴진

산부인과 진료시간 2023. 7. 11.부터 진료개시 ※ 공휴일 휴무 / 매주 화요일 09:30~16:00

점심시간 12:00~13:00

문의 033-670-2537(2877) 양양군보건소 진료지원팀

소액자금 때문에 불법사금융을 이용하지 마세요.

「소액생계비대출」이 있습니다!

어떤 상품인가?

소액의 생계비가 부족한 저소득·저소득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안전한 정책서민금융상품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분
- 기존 정책서민금융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분(연체이력이 있거나, 소득증명이 어려운 분 등)

지원 내용이 궁금해요

대출한도	상환방식	납부이자
최대 100만원 (최초 50만원)	1년 만기일시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최초 월 이자 6,416원*
최초 50만원 대출 후 6개월 이상 성실상환시 추가 대출 가능	성실상환 시 최장 5년 이내 만기 연장 가능	*50만원 대출 및 금융교육 이수 기준 이자 성실납부 시 최저 이율금리 9.4%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 상담예약**
 - 서민금융콜센터 (국번없이) 1397
 - 온라인 예약 페이지 (sloan.kinfra.or.kr)
- 대면상담**
 - 전국 서민금융진흥원지점센터에서 직접대면상담
- 대출신청**
 - 상담 후, 대출 신청 및 약정, 심의까지 당일 진행

소액생계비대출 상담예약은 (전화) 서민금융콜센터 국번없이 1397
(온라인) sloan.kinfra.or.kr

출처: 한국금융연구원

'일타강사' 이지영 강사님과 함께한 시간

일타강사 이지영 초청 강연

- 주제: 세상에 의미없는 실패는 없다
- 일정: 2023. 5. 24(수)
1부: 오전 / 2부: 오후
- 대상: 관내 중·고등학생 및 학부모, 지역주민
- 주관: 통합 양양중·고등학교 중등문화
- 후원: 맥산그룹



취지: 양양중·고등학교 중등문화 통합 출범 기념행사 일환으로 양양의 미래인 지역학생에게 수능 및 학습법에 대한 공부조언과 인생조언 등의 강의로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기회 제공

이지영 강사: 18년동안 사회탐구 영역 강의와 누적 수강생은 350만명임
특히 공부관련 조언과 동기부여, 공부자극 쏘소리 영상 등 수강생은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강사임



지역주민을 위한 슬기로운 우체국 이용 방법 안내

더 간편하고, 저렴한 우체국소포 보내기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어주세요

우편물 접수정보를 스마트폰앱(우체국), 인터넷우체국에서 사전에 입력하면 1통도 소포요금을 할인(3% ~ 15%)해 드립니다.

이젠, 주소 일일이 적지마시고, 입력하고 요금할인까지 받으세요!

* 접수방법 *

우체국 모바일 앱 접속(또는 인터넷우체국) -> 간편사전접수 클릭 -> 창구소포 클릭 -> 보내는분 / 받는분 / 물품정보 입력 -> 접수신청 -> 우체국에 방문하여 휴대폰 번호 제시

회원가입 필요없음. 다량 접수는 PC(인터넷우체국) 이용 접수

항공방제업 신고안내

항공방제업이란

2023. 1. 1. 「농약관리법」 시행과 관련하여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농약확산수용부품으로 정하는 것에 한함)를 사용하여 행하는 방제업(농약을 사용하여 병해충을 방제하는 것)을 말한다

* 「농약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고, 항공방제업을 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신고대상: 항공방제업을 하려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본인경작 농지 방제 등 영업을 하지않는 항공방제, 농약 이외의 다른 자재(비료 등) 살포는 제외)

신고수단: 전자민원, 방문, 우편 등

- 전자민원: www.agrin.go.kr 에서 신청

- 방문, 우편 등: 신고 준비서류 및 수수료(전자수입인지) 구비 제출

신고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품질관리과 ☎250-0977

항공방제업 신고 준비서류

- 항공방제업 신고서(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7호의 2서식)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 항공기, 경량 항공기 또는 무인등록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항공방제기술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무인등록비행장치에 대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서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종량제 봉투에 버려주세요

1. 씻어도 이물질이 제거되지 않는 용기류

치킨상사 속 기름종이

이물질이 많이 묻어있고,
다른 재질과 혼합되어 재활용이 어려움



미세척 컵밥, 컵라면 용기류 등

- 다른 재질과 혼합되어 재활용이 어려움
- 미세척된 컵라면 용기는 음식물이
제거되지 않아 재활용이 어려움



음식물이 제거되지 않은 마요네즈·케첩통·기름통

제대로 씻고 말릴 경우 재활용 가능



2. 오해하기 쉬운 분리배출 대상이 아닌 품목

과일망, 과일포장재

재활용이 어려움



아이스팩

고흡성수지 아이스팩은 재활용이 어려워
종량제 봉투로 배출
(전용수거함이 있는 경우 분리배출)



CD/DVD, 고무장갑, 슬리퍼

다른 재질과 혼합되어 재활용이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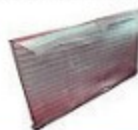
깨진병,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깨진병, 판유리는 재활용이 어려움
▶ 신문에 싸서 버림



보온보냉팩

재활용이 어려움



노끈

노끈마다 재질이 다양해 구분이
어려우므로 재활용이 어려움



도자기류, 사기그릇

재활용이 어려움 ▶ 불연성쓰레기로 배출



문구류(볼펜, 샤프, 칫솔 등)

다른 재질과 혼합되어 재활용이 어려움



기저귀, 화장지

재활용이 어려움



3. 폐비닐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헹구는 등 이물질을 분리배출 해주세요

음식물이 묻은 비닐

헹구지 못할 경우 종량제 봉투로 배출



스티커 등이 붙은 비닐

이물질을 제거하지 못하는 경우
종량제 봉투로 배출



재활용 불가품

식탁보, 은박비닐, 이불커버 등은
종량제 봉투로 배출



자세한 내용은 **내손안의 분리배출앱** 을 참고해주세요

2021 자원순환 실천플랫폼
우리도 함께 합니다

지구를 위한 선택
사실은 우리를 위한 실천
www.recycling-info.or.kr/act4r/



"세계, 인류의 미래, 산림에서 찾는다"



숲에서 만나요, 포레스트 강원

강원 세계 산림엑스포 2023

Gangwon Forestry Exhibition

2023. 9. 22. ~ 10.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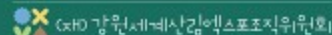
강원 세계잼버리수련장 및 고성 속초 인제 양양 부행사장



주최



주관



후원



협찬



Gangwon Forestry Exhibition 2023